

##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 개념분석\*

### Concept Analysis of Hope of Community Dwelling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최은정 (Eun Joung Choi)\*\*

정유진 (Yu Jin Jung)\*\*\*

조현미 (Hyun-Mee Cho)(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concept of hope of community dwelling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through a concept analysis based on Walker and Avant's methods. Hope among these individuals was characterized by four key attributes: "a positive outlook on the future," "freedom from mental illness," "enjoyment of an ordinary daily life," and "discovery of meaning in illness." Thus, hope for individuals with mental disabilities living at home is defined as "the state of looking positively toward the future, living an ordinary life without being constrained by mental illness, and seeking meaning amidst challenges while pursuing spiritual growth."

The identified attributes highlight the need for policies that promote active recovery and community integration, emphasizing the proactive involvement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dditionally, understanding these attributes of hope can provide a foundation for Christians to recognize these individuals as neighbors, offering guidelines for a life of togethernes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potential application for intervention development and research aimed at fostering hope of community dwelling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thereby facilitating community integration.

**Key Words :** mental disorders, community, hope, concept analysis

\* 2024년 11월 4일 접수, 11월 30일 최종수정, 12월 2일 게재확정  
이 연구는 2024년 고신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간호대학 교수,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 jacob7410@kosin.ac.kr

\*\*\*경남정보대학교(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간호학과 조교수,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5, yjjung@eagle.kit.ac.kr

\*\*\*\*가야대학교(Kaya University) 간호학과 조교수,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 208, yuchanmom@nate.com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정신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을 포함하는 정신장애를 의미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이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법제처, 2016), 국내 정신장애인의 수는 2013년 95,675명에서 2023년 기준 104,19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24). 2017년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한 입원요건 강화로 인하여(보건복지부, 2017)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신장애는 특성상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포괄적 관리가 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재발과 입·퇴원의 과정이 반복되는 질환이다(Edward et al., 2009).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일상적인 삶의 질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와 가족의 보살핌이 중요시되고 있으나 가정에 거주하는 재가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은 다양한 심리 및 신체적 고통을 겪기도 하며(최은정 외, 2020: 225-227), 이들은 입원환경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 나왔을 때 생소한 문화와 주변의 여러 시선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다(전원희 외, 2020: 7-10).

최근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대한 관점은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 회복 모델로 변화되고 있고 이러한 회복 지향적 치료의 개념은 많은 나라에서 정신건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국가 정책, 서비스 기준 및 지도 원칙에 포함되어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WHO, 2018). 정신장애인의 회복이란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자기 정체성과 목적을 되찾아 자기 자신을 단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초월하여 보다 긍정적인 자아의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Higgins & Mcbennett, 2007). 이러한 의미에서 정신건강분야에서 회복은 정신장애가 있을지라도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그 어떠한 낙인과 차별 없이 사회에 속해 살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는 하나의 과정으로(Resnick et al., 2005)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회복적 측면에서 희망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희망(Hoping)이란 좋은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 또는 인지된 곤경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이며, 이는 인간이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Miller & Powers, 1988). 건강분야에서 희망은 불확실성과 고통 속에서도 긍정적인 목표

를 설정하고 달성하려는 의지(Antunes et al., 2023)로 간주되며, 희망은 신체질환을 가진 환자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에 있어서 보다 나은 미래를 획득하고, 성장 해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Frese et al., 2009).

또한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시편 34:18) 라는 성경 말씀처럼 마음이 상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이들을 향해 주님은 가까이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장애와 질병, 이로 인한 고통의 치유를 통해 고통에서의 해방과 관계의 건강함까지 전인적 회복을 이루셨다(정기철, 2017).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며, 희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Lewis, 이종태 역, 2018). 이에 마음이 상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초점을 둔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같이 정신장애인의 전인적인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희망이라는 개념은 질병과 연관되어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개념과 특징에 대한 파악들이 필요하리라 본다. 정신장애인의 개념분석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왔으며, 희망 개념으로 정신분열증환자의 희망 개념분석이 진행되었으며(최귀순 외, 2005: 418-421), 소수의 연구에서 희망 관련 관계 연구가 진행되거나 프로그램 효과에서 희망 개념이 사용되었고(박주현·박현숙, 2017: 268-269 ; 한금선 외, 2010: 209-210 ; 현명선 외, 2014: 163), 최근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지역사회 내 거주하는 재가 정신장애인은 많아졌으나 이들의 희망의 개념을 다루는 고찰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가정에 거주하는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속성과 개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신장애라는 질병 상황에서 재가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희망에 관해 살펴보는 것은 정신장애인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 및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2011)의 개념분석 틀을 적용하여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개념분석을 진행하여 그 속성을 파악하고 정의함으로써 희망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재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간호중재 및 정신건강분야의 실무와 정책 수립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재가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희망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Walker와 Avant(2011)의 개념분석 틀에 따라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관한 결정적 속성을 규명하고 그 의미를 조직화하여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및 상담분야

등의 진단과 실무 및 용어 개발을 비롯해 정신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로의 통합된 회복에 필요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문헌연구와 분석을 통해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의 활용을 확인한다.
- 2) 재가 정신장애인 희망의 결정적 속성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모델사례를 기술한다.
- 3) 재가 정신장애인 희망에 대한 선행요건과 결과를 규명한다.
- 4) 재가 정신장애인 희망에 대한 경험적 증거의 진술을 통해 재가 정신장애인 희망 개념의 속성이 실제적 유형으로 존재하는지 인증해 보인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개념분석 연구로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IRB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 번호: 2024-0033). 문헌 조사는 ‘재가 정신장애인’과 ‘희망’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타 학문 및 간호학 등에서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개념분석을 위해 Walker와 Avant(2011)의 방법을 이용 하였으며 그 개념이 가진 속성을 규명하고자 수행된 개념분석 연구이다.

###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문헌조사 범위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표된 한국과 국외의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와 ‘희망’에 관한 사전적 정의, 이론적 정의 및 선행 연구들이다. 국내 분석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 누리미디어(dbpia)를 활용해서 검색된 학회지 게재 논문 및 학위논문들을 분석에 이용하고 국외는 CINAHL과 PubMed를 통해 제공하는 DB를 이용하여 검색된 문헌들을 고찰하여 연구에 이용하였다. 검색된 문헌들 중 영어나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졌거나 원문이 검색되지 않는 출판물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희망을 주제로 하더라도 암 환자나 기타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비롯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재활이나 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다룬 연구 등 주제와 관련성이 낮거나 특정 주제를 다룬 논문 및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 주제를 다룬 논문은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헌은 한국의 학위논문 3편, 학술지 논문 16편이 선정되었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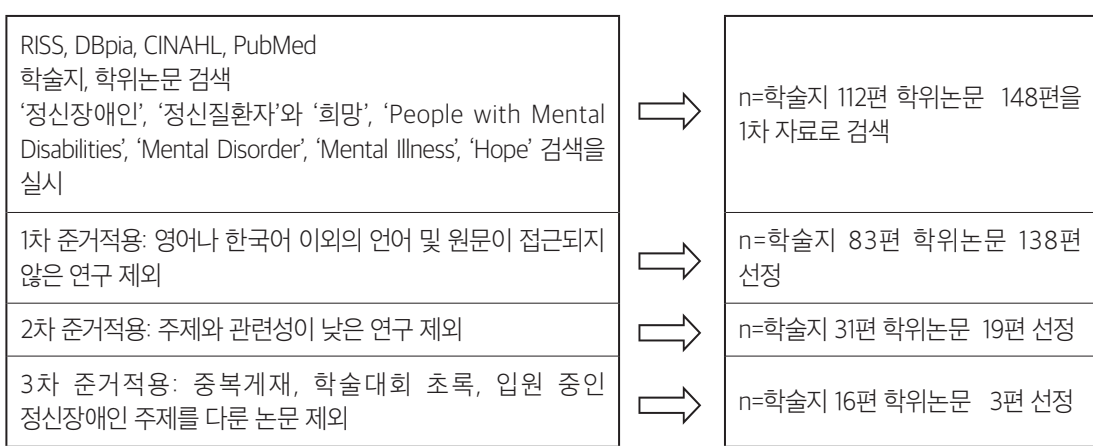


Figure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 3. 개념분석 과정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의 개념적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념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문헌에서 나타나는 개념의 특징들을 분류하고 확인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개념 선정, 2) 개념 분석을 하는 목적 결정, 3)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의 개념사용을 확인, 4) 개념에 대한 결정적 속성의 추출, 5) 개념의 모델사례, 부가사례(반대사례, 유사사례, 연관사례)를 제시, 6) 개념의 선행요건과 결과를 규명, 7) 경험적 준거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할 때 이론 및 개념 분석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2명의 연구원이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자료 내에서의 맥락적 의미, 개념의 의미와 속성, 활용 등에 대해 의논하고 분석 및 의미의 추출 과정을 거쳤으며 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주제어를 '정신장애인 희망', '희망분석', '정신질환자', '희망',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Hope'으로 선정하여 검색하였다. 그 다음으로 개념분석을 시도하는 목적에 대해 다시 떠올려 보고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이라는 개념이 여러 사회문제와 연관되어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의미가 희석되거나 다양하고 불분명한 정의적 속성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그 후 선정된 개념의 사용을 확인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문헌을 검토하여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속성을 추출할 수 없는 것들은 분석 자료에서 제외한 후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음 단계로 최종 선정된 자료들의 내용을 연구자들이 검토한 후 각 분야별로 정신장애인의 희망의 속성을 분석하고 그 속성을 기반으로 개념을 명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념의 필수 양상을 이해시키며, 유사한

개념사용과 혼동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델, 반대, 경계,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였다(Walker & Avant, 2011). 또한 선정된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관한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규명하고 경험적 증거를 확인한 후 정의를 제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연구는 Walker와 Avant (2011)가 제시한 것과 같이 대상개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여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의 특성을 이해하고 편견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개념 사용 확인

##### 1) 사전적 정의

정신장애인은 관형어로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지속적인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 장애 따위로 감정조절·사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국립국어원, 2022). 재가 정신장애인이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을 말한다.

‘희망’은 표준국어대사전(2024)에 따르면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뜻하며, 자신의 삶이나 세계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하는 낙관적인 심리 상태를 말하며, 동사로서 그것의 정의는 ‘자신 있게 기대하라’와 ‘기대로 욕망을 소중히 하라’를 포함한다. 그 반대로 낙담, 절망, 우울이 있다(위키백과, 2024). Merriam-Webster 사전(2024)에 따르면 첫째, 명사로서 희망은 ‘성취나 성공에 대한 기대를 동반한 욕망’을 의미하며 둘째, 동사로서 희망은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확실성은 낮지만, 바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포함된다.

##### 2) 타 학문에서의 개념 사용

희망에 대한 사용 범위는 여러 영역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 그 의미를 이용하여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종교적 의미에서 희망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인간의 삶의 목적을 찾고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가 희망의 원천이 되며, 인간의 삶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진행

된다고 믿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는 중요한 신념이 된다. 또한, 이러한 희망은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강화되며, 신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는 과정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힘이 된다고 하였다(Watkins, 2009).

심리학에서 희망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그 목표에 필요한 계획과 동기를 가질 때 생겨난다고 하였으며, 목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희망과 정신의 의지력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희망과 낙관 사이의 차이는 전자가 개선된 미래로 가는 실용적인 경로를 포함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nyder, 2000).

사회학에서 희망은 개인이나 집단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그 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필수적인 심리적, 철학적, 물질적 동력이다. 희망은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감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적 상상과 사회적 행동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Bloch, 1986).

의학적 상황에서 희망은 환자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심리적 요소로 보고 있다. 신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희망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의 적응과 안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과 치유의 과정으로 보았다(박영옥, 2023: 3317).

### 3) 간호문헌에서의 개념 사용

간호학에서 희망은 환자가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며,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Antunes 외(2023)는 희망을 다차원적이고 동적인 정서 상태로 보았으며, 희망은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현재와 미래를 향하는 과정 지향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인간이 불확실성과 고통 속에서도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려는 의지를 포함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Benzein과 Saveman(1998)은 희망을 미래 지향적인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와 활동을 포함하는 감정으로 정의하였다. 희망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연결성이 있는 중요한 것이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전략을 통해 적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이것은 간호학적 맥락에서 환자들이 회복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배가령 외(2017: 218)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희망을 높여주는 것은 스스로 병에 대하여 돌볼 수 있는 자가간호의 역량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하였다. 김부경과 오복자(2022: 594)는 환자의

영적 안녕과 자가간호 수행에서 희망이 매개한다고 하였다. 즉 희망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와 자가간호 수행 능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희망은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강화시키며,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한다.

#### 4) 정신장애인 관련 연구에서의 개념 사용

정신분열병환자의 희망 개념분석 연구(최귀순 외, 2005: 418-421)에서 면담을 통해서 이들의 희망의 본질적 의미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느끼며, 현재의 삶을 행복하고 활기차게 사는 것이다. 이러한 희망은 현재의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활력소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의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신질환이 없는 일반인과 같은 평범함 삶을 희망하였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원천은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느끼는 사랑과 믿음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망이었다. 반대로 정신분열병환자에게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친밀한 인간관계의 부재, 질병상태, 어려운 생활 여건, 자신감 부족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희망과 회복 관련 연구(현명선 외, 2014: 163)에서는 정신장애인의 희망 정도가 높을수록 회복정도가 높았고, 치료자와의 관계를 회복-증진관계로 지각할수록 회복과 희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거주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희망을 증진시키고, 우울을 사정하여 중재하는 것은 자살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한금선 외, 2010).

김수지(2017: 50-51)의 사람돌봄이론에서 정신장애인의 희망불어넣음(Hoping)의 의미는 질환의 의미를 발견 하는 것, 현재 상황으로부터 나를 끌어 올리는 것, 나를 견고하게 일으켜 세우는 것, 고통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나에게 희망을 가지는 것 등이며, 상황적 맥락에서 희망을 이야기함, 마음이 들뜸, 능숙함, 자신감,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희망적 개념인 정신장애로부터의 회복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김희정, 2009: 388)에서 도출된 회복의 의미는 증상, 투약, 병식을 포함하는 질병 전반이 관리되고, 만족스런 인간관계가 기반이 된 사회적 기능이 실현되며, 내적으로는 개인이 건강한 개체로서 기능하는데 기반이 되는 자아가능이 안정화되어 현실을 감당하고 도전 할 수 있으며, 미래를 낙관적인 자세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가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경험(전원희 외, 2020: 7-10)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이들은 정신병원이라는 환경에서 벗어나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서도 자유로움을 느끼며 만족해



하고 있다. 자신이 결정할 수 있고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상의 삶에서 몸과 마음이 매이지 않고 환자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시간을 보낸다는 표현을 한다. 한편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으로 사회로부터의 격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에서 속상함을 느낀다. 이들은 정신장애인들이 충분히 치료받고 사회에 복귀하여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입원 치료환경개선 및 사회복귀와 관련된 재활 프로그램과 배움의 기회 증진, 정신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길 희망하고 있었다.

## 2.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잠정적 기준 목록과 속성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 개념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잠정적 기준 목록과 속성이 확인되었다.

### 1)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잠정적 기준 목록

- (1)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김수지, 2017 ; 김희정, 2009 ; 최귀순 외, 2005 ; Bloch, 1986).
- (2) 낙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이다(전원희 외, 2020).
- (3) 정신장애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경험이다(김수지, 2017 ; 전원희 외, 2020 ; 한금선 외, 2010).
- (4) 일반인처럼 평범한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전원희 외, 2020 ; 최귀순 외, 2005).
- (5)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김수지, 2017 ; 김희정, 2009 ; 현명선, 2014).
- (6) 질환의 의미를 찾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과정이다(김수지, 2017 ; 박영옥, 2023 ; 최귀순 외, 2005 ; Watkins, 2009).

### 2)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 개념의 결정적 속성 확인

Walker와 Avant(2011)에 따르면 속성을 정의하는 것은 개념을 설명할 때 자주 드러나는 현상과 특징이며 이것은 타 개념과 구분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헌을 고찰한 결과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은 미래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정신장애로부터 회복되는 것이었다. 또한 일반인처럼 평범한 삶을 원하는 것이며, 질병으로 인해 낙인이나 고통이 있었으나 용기와 힘을 내는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질병의 의미를 찾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정신장애인의 고통에 대한 속성은 다음과 같다.

- (1)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봄(잠정적 기준목록 (1), (4), (5))
- (2) 정신장애로부터 자유로움(잠정적 기준목록 (2), (3), (4))
- (3) 평범한 일상을 누림(잠정적 기준목록 (2), (4))
- (4) 질병의 의미를 발견(잠정적 기준목록 (5), (6))

### 3. 개념의 사례 개발

#### 1) 모델 사례(Model Case)

모델 사례란 개념의 주요 속성들을 모두 포함하는 사례를 말하며, 그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Walker & Avant, 2011).

30대 중반인 A씨는 30세 초반에 ‘국정원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족과의 접촉도 거부하였고,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약 4주가량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집에서만 지냈으며, 남편과의 사이도 소원해졌던 상태로 이후 재발이 반복되고 입·퇴원을 여러 번 하였다. 환각이나 망상이 심해질 때면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피해망상적인 생각이 들어 예민하고 공격적인 상태가 되어 몇 달씩 장기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담당의는 지속적으로 약을 잘 복용하고 자기관리를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었고,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집으로 방문하여 A씨를 위로하였다. A씨는 차츰 회복되면서 호전도 가능할 수 있음을 알아(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봄)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졌고 최근에는 교회 공동체 통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교인들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더 평안해졌다. 또한 봉사도 하면서 정신과적 증상이 조금씩 사라졌고, 질병에 매어 살았던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느꼈다(정신장애로부터 자유로움). 원래 헤어디자이너였던 A씨는 정신장애로 집에서만 지냈었지만 지인 미용실 원장의 배려로 파트 타임으로 일하게 되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으며, 사춘기를 겪는 아이의 고민도 들어줄 정도의 여유도 갖게 되었다(평범한 일상을 기대). 처음에는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낙심한 때도 많았지만 신앙이 깊어 지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닐 것이라는 믿음도 생겼으며, 주변에 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돕게 되면서 자신의 고난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들게 되었다. A씨는 이 모든 것이 기적과 같은 생각이 들면서 불행만이 아닌 감사의 의미로 다가옴을 느꼈다(질병의 의미를 발견).

## 2) 반대 사례(Contrary Case)

반대 사례는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 개념이 아닌 것에 대한 분명한 예시이며 개념의 결정적 속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례이다(Walker & Avant, 2011).

조울증인 40대 B씨는 학교 교사로 잘 지내오던 중 과대망상 및 난폭한 행동을 비롯하여 심각한 감정변화를 느끼면서 학교에 결근하거나 주변인과 싸우는 횟수가 늘게 되어 가족에 의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처음에는 호전되는 듯 하였으나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점차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었고, 거액의 카드빚으로 인해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며, 과민하면서 충동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였다. 아이들도 아빠와 살기 힘들어하여 아내에게 간 상태로, 직장에는 휴직계를 내고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B씨는 담당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았고, 심하게 우울할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며, 한번은 바다에 빠져 죽겠다고 뛰어들었다가 낚시꾼에 의해서 구조되어 정신과 병동 입원을 장기간 하였다. 병원에서 지내면서 다시 학교 교사를 할 수 있을지 낙관적이지 않았다. 이미 주변에서는 B씨가 다시 일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선이 있었고 재정적으로는 대출한 금액의 상황이 어려운 상태였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의료진의 대화를 자주 거부하였고, 동료 환자들과 자신은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어울리기를 싫어하였으며 집에서나 병원에서 홀로 지내는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어디서나 정신병이 자신을 가둔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비참함을 느꼈다. 퇴원 후 B씨는 가정, 일 모든 것이 변해버렸음을 느끼고,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다. 평생 교사로 잘 살던 자신에게 왜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억울하고 슬픈 생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다.

이 사례에서 B씨는 교사로서 지내다가 조울증이라는 정신장애로 인해 치료받는 상황이었으며, 질병을 겪는 가운데 희망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웠고, 치료 도중 이혼과 직장 유지의 어려움과 외로움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기대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고, 질병으로 인해 억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질병의 의미를 발견하는 속성이 포함되지 않았다.

## 3) 경계 사례(Borderline Case)

유사 사례라고도 불리는 경계 사례는 개념의 결정적 속성 중 일부만 포함하고 있어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이다(Walker & Avant, 2011).

C씨는 50세 여성으로 20대에 조현병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질병을 앓고 있다. 조현병으로 다니던 대학교도 그만두고 특별한 직업 없이 집에서 주로 지냈으며,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이후로는 약

물로 증상 조절은 가능하지만 기능적인 면이 저하되어 직장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태였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 하면서 주 1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다니거나 동네 주변을 돌기도 하였다. 기독교 집안이지만 C씨는 병으로 인해 주변 시선이 두려워 교회에는 나가지는 못하였지만, 가끔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였고,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으며, 타 지역에 있는 동생이 가끔 집에 오면 함께 이야기도 하면서 나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평범한 일상을 누림). C씨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쪽 집에서 재발 없이 지내어 조현병이지만 불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삶의 낙을 느끼지 못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 C씨는 다니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간호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직업재활을 소개받았고,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덜 심심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봄).

#### 4.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서 선행요인(antecedents)은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이 나타나기 전에 발생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하며 결과요인(consequences)은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이 나타난 결과에 대한 사건이나 사항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개념의 속성을 더욱 명확하게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Walker & Avant, 2011).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선행요인은 다음과 같다(Figure 2).

- (1)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집에서 생활함(전원희 외, 2020)
- (2) 약 복용 및 정신과적 증상이 잘 조절됨(김희정, 2009 ; 한금선 외, 2010 ; 최귀순 외, 2005)
- (3) 주변에 적절한 지지체계가 있음(김희정, 2009 ; 전원희 외, 2020 ; 최귀순 외, 2005)
- (4) 영적인 생활을 추구함(김수지, 2017 ; 최귀순 외, 2005 ; Watkins, 2009)
- (5) 재활을 위한 꾸준한 노력(김부경·오복자, 2022 ; 전원희 외, 2020)

재가 정신장애의 희망은 정신장애인에게 아래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Figure 2).

- (1) 의욕적인 생활(김수지, 2017; 김희정, 2009; 전원희 외, 2020; 최귀순 외, 2005)
- (2) 재발이 없음 (김희정, 2009; 한금선 외, 2010; 최귀순 외, 2005).
- (3) 삶의 질이 향상됨 (김희정, 2009; 전원희 외, 2020; 최귀순 외, 2005)
- (4) 만족스러운 대인관계(김희정, 2009; 최귀순 외, 2005)
- (5) 질병을 수용함(김부경, 오복자, 2022; 전원희 외, 2020; Watkins,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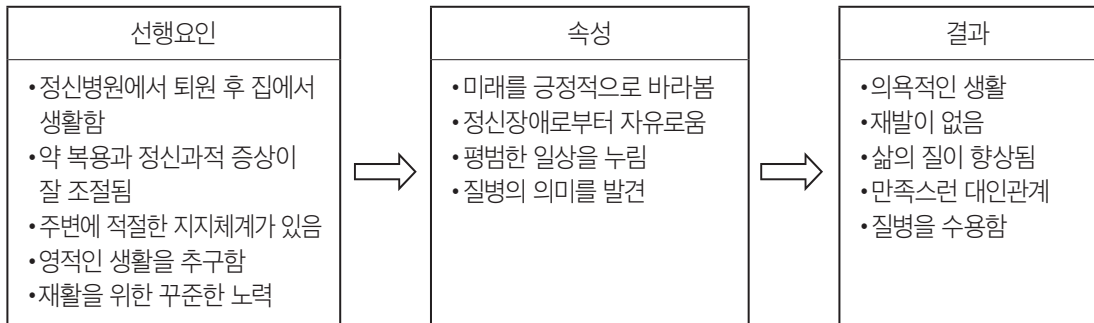


Figure 2. The antecedents, attributes, and consequences of hoping in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 5. 경험적 증거 확인

개념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속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결정하는 것이다. 제시한 개념의 속성이 실제적 유형으로서 존재하는지를 인증해 보여주는 개념분석의 최종 단계이다(Walker & Avant, 2011). 본 연구에서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 (1)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봄
- (2) 정신장애로부터 자유로움
- (3) 평범한 일상을 누림
- (4) 질병의 의미를 발견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2011)의 개념분석 틀을 적용하여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개념분석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봄’, ‘정신장애로부터 자유로움’, ‘평범한 일상을 누림’, ‘질병의 의미를 발견’을 속성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첫 번째 속성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봄’이 도출되었다. 희망은 인간이 불확실성과 고통 속에서도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Antunes, et al, 2023). 이는 질병 회복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부각한다(Benzein & Saveman, 1998). 김부경과 오복자(2022: 594)의 연구에서도 희

망은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강화시키며,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신장애로부터의 회복을 다룬 김희정(2009)의 연구에서는 질환을 받아들이고 증상관리, 병에 대한 이해, 투약 이행 등이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러한 회복의 의미가 질병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재기하게 하는 희망으로 작용한다고 기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의 희망의 속성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회복은 일반 질병에서의 회복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2017년부터 시행되어 온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장애인들의 입원조건 강화와 탈원화를 강조하고 있어 기존 입원 치료 위주의 관리에서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정신재활을 중심으로 소비자 혹은 서비스 이용자(재가 정신장애인) 중심의 적극적 회복의 개념으로 변화해 왔다. 영어로 재기와 회복은 ‘recovery’로 같은 표현을 쓰지만 재가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recovery’는 개인의 태도와 가치, 목표, 감정, 역할 등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개인 특유의 과정으로 보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재기의 의미가 크고, 재기는 질병으로 인해 여러 제약을 지니고 있더라도 재활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추구하는 노력을 하게 하는 원동력인 희망이라는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변화를 뜻하고 있다(Anthony, 1993). 이에 재가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희망은 질병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요소라고 보여지며 이러한 분석내용들이 본 연구에서 도출된 희망의 속성인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봄’에 대해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정신건강전문가들은 증상의 완전한 제거가 아닌 증상의 악화나 재발에 대한 대처를 전제로 하는 교육과 훈련을 재가 정신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회복에 대한 희망이 꺾이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리의 노력들은 증상 호전에 대한 기대를 높여 재가 정신장애인들이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함으로써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며 또다시 회복과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하게끔 만드는 선순환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보여진다. 이에 더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고통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특징인 전인적인 회복을 가져오는 것과 관련되며 예수님의 시선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기에 가능하다(정기철, 201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립보서 4:6-7) 라는 성경 말씀은 문제에 시선을 두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평강으로 가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로 나와 다양한 정신 증상과 사회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할 재가 정신장애인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희망을 가져볼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그들을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이웃으로 여길 수 있

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참된 평안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전하여 그들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다음으로 재가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희망의 두 번째 속성은 ‘정신장애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었다.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희망과 회복을 다룬 현명선 외(2014: 163)의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희망 정도가 높을수록 회복 정도가 높다고 기술하고 있었고 이러한 희망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자신감 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김수지, 2017: 50-51). 또한 지역사회에 머무는 상황에서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질병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일반인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경험할 때 희망을 가지게 됨을 보고한 연구도 있어(최귀순 외, 2005: 418-421)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정신장애에 대한 낙인과 자신감 부족, 친밀한 인간관계 부족은 희망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Anthony, 1993)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볼 때 정신장애가 가져다 주는 여러 부정적 요소들이 삶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정신장애인의 희망을 고취시키고 회복을 가져다주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정신건강분야에서의 회복의 개념은 의료모델이 중심이 되어 「정신질환 증상의 경감」에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탈원화로 지역사회에 머무르는 재가 정신장애인의 수가 늘어가면서 정신장애인도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통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복의 주요 가치로 부상하며 「지역사회로의 통합」이 중심이 되는 회복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다(Anthony, 1993). 이러한 변화에는 정신질환이라는 난관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자기 주도성이 희망을 갖게 하여 결국에는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회복을 가져다주는 것을 강조한다.

상기의 연구 결과들에서 재가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희망은 질병에 얽매이지 않는 것, 즉 ‘정신장애로부터의 자유로움’이라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신장애는 질병 특성상 자주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데(Davis et al., 2012)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 낙인이 클 경우 앞서 언급한 부정적 감정은 더욱 가중되며 자아 해체의 위협을 경험하게 만들어 지역사회에 머무르는 재가 정신장애인들의 치료와 재활에 장애물이 되고 이러한 상황은 회복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결국에는 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Paul et al., 2010). 또한 앞서 본 연구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이 희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어 재가 정신장애인들이 쉽게 낙심하고 긴장하여 희망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줄여주기 위해 정신건강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전문가들은 재가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 관계 개선과 낙인의 감소를 위한 명확한 질병정보와 교육을 시행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를 통해 정신장애가 지역사회에 머무르는 것에 장애물이 되는 상

황을 줄여 재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의 통합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세 번째 속성은 ‘평범한 일상을 누리’으로 드러났다. 재가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경험(전원희 외, 2020: 7-10) 연구에서 재가 정신장애인들은 일상의 삶에서 환자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만족감을 얻었고 정신병원이라는 환경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의 기회를 가지는 것에서 재기(recovery)에 대한 기대를 갖는 희망적인 상황을 경험한다고 기술하고 있어 본연구에서 도출한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의 속성에 ‘평범한 일상을 누리’를 포함시킨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비 정신장애인과는 달리 정신장애인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권리보장의 불공평성 경험에서 벗어나 사회적응력을 높여 삶의 대한 만족감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전원희 외, 2020: 7-10). 따라서 국가와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이 충분히 치료받고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상생활의 저해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감소시켜주는 노력을 함으로써 재가 정신장애인들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먼저 재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연대적 공감과 경계를 허무는 실천을 하여(김종우, 2020) 비 정신장애인이 누리는 평범한 일상을 정신장애인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마지막 속성은 ‘질병의 의미를 발견함’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는 중요한 관점으로(Watkins, 2009), 이들에게 희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키워나가고 믿음의 요소는 정신장애라는 질병 과정에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힘이 된다(최귀순 외, 2005: 418-421). Lewis(이종태 역, 2018)는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들에게 궁극의 선과 일치하도록 이끄는 과정이며 여기에서 희망의 역할을 강조한다. Lewis는 고통이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물질적 세계를 넘어서 더 큰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게끔 희망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신장애라는 질병은 정신장애인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질병의 의미를 발견하고 수용하는 경로를 거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경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예레미야 29: 11)라는 말씀처럼 고통의 과정에서도 역설적인 미래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질병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뒷받침된다. 질병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온전히 질병 치료에 대한 실천력이 생



기며(Cho, et al., 2023) 이는 삶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회복을 기대하게 한다(김수지, 2017: 50-51).

이처럼 재가 정신장애인이 희망을 경험하는 선행요인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속성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회복을 이끌어내며 이러한 현상이 중국에는 국가 차원에서도 의료비 감소를 비롯해 국민정신건강증진에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기에 관련 개념을 다루는 연구자들은 해당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구별하고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전문가들은 재가 정신장애인의 정신증상 경험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의 속성을 인지하여 이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관리수행에 있어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희망의 속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봄’, ‘정신장애로부터 자유로움’, ‘평범한 일상을 누리’, ‘질병의 의미를 발견’과 같은 속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중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alker와 Avant(2011)의 개념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개념과 속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규명하며 결정적 속성을 도출함으로써 희망이 가지는 본연의 의미에 대해 명료화를 도와 관련분야의 실무 및 정신건강분야의 용어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의 속성이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삶에 대해 보다 세밀한 이해를 도와 정신 건강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 개입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더해 재가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적극적 회복인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은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감소 될 수 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캠페인과 재가 정신장애인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상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개입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 연구가 부족하여 희망이나 희망과 유사한 개념이 다루어진 기타 연구를 문헌고찰에 포함시켜 희망의 속성을 추측하였고, 더 많은 자료를 충분히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점이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 문화적 분위기에 따라 재가 정신장애인에 대해 판단하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의 속성 또한 어느 정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대한 세부 속성을 다루는 연구를 할 경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을 고취시키고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본 연구에서 드러난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의 속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질병 과정에서의 희망 관련 측정 도구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수정 및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재가 정신장애인 희망의 속성을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김기홍 (2023). 사복음서 속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 치유 사역에 나타난 통합 교육적 함의. **신앙과학문**, 28(2), 51-71.
- 김부경·오복자(2022). 영적 안녕이 혈액투석 환자의 자가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 희망의 매개 효과. **한국성인간호학회지**, 34(6), 592-601.
- 김수지 (2017). **사람돌봄이론**. 파주: 수문사.
- 김종우 (2020). **의학적 상황에서의 고통관에 대한 전인적 성찰: 과학주의에 대한 종교-철학적 비판을 통하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희정(2009). 정신장애로부터의 회복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8(4), 379-389.
- 박영옥 (2023). 암 생존자의 희망에 대한 개념분석. **인문사회** 21, 14(2), 3305-3320.
- 박주현·박현숙 (2017). 희망강화프로그램이 낮병원 정신장애인의 희망,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6(3), 260-270.
- 배가령·임영순·노기옥·손유정·서한길 (2017). 림프부종을 가진 여성 암 환자의 희망, 자가간호역량과 삶의 질의 관계. **중앙간호연구**, 17(4), 213-219.
- 법제처 (2016). 장애인복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8177&efYd=20160101#0000>(검색일 2024.5.4.)
- 보건복지부 (2017).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additional diagnosis by the second psychiatrist in the new Mental Health and Welfare Law.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 이종태 역 (2018). **고통의 문제**. Lewis, C. S. (1940). The Problem of pain. 서울: 홍성사.
- 전원희·최은정·조현미 (2020). 재가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경험. **지역사회간호학회지**, 31(3), 244-255.
- 정기철 (2017).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예수**. 서울: 쿤란출판사.
- 최귀순·김희정·노춘희 (2005). 정신분열병환자의 희망 개념 분석. **정신간호학회지**, 14(4), 417-429.
- 최은정·조현미·조은주·이민경 (2020). 재가 정신장애인 주보호자의 고통경험. **정신간호학회지**, 29(3), 218-228.
- 한금선 외 (2010).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희망, 우울 및 자살사고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9(2), 205-211.
- 현명선·박은영·김영희·김유라·조명선 (2014).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희망과 회복: 치료자와의 치료적 관계의 매개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3(3), 156-164.
- Anthony, W. A. (1993). Recovery from mental illness: The guiding vision of the mental health services system in the 1990s.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16(4), 11-23.

- Antunes, M., Laranjeira, C., Querido, A. & Charepe, Z. (2023). "What do we know about hope in nursing care?": a synthesis of concept analysis studies, *In Healthcare*, 11(20), 2739.
- Benzein, E. & Saveman, B. I. (1998). One step towards the understanding of hope: a concep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5(6), 322-329.
- Bloch, E., Plaice, N., Plaice, S. & Knight, P. (1986). *The principle of hope* vol. 3. Cambridge, MA: Mit Press.
- Cho, H. M., Choi, E. J., Choi, H. J. & Cho, E. J. (2023). Concept analysis of uncertainty in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45, 44-53.
- Davis, L., Kurzban, S. & Brekke, J. (2012). Self-esteem as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functioning and symptoms for individuals with severe mental illness: a prospective analysis of modified labeling theory. *Schizophrenia Research*, 137(1), 185-189.
- Edward, K. L. Welch, A. & Chater, K. (2009). The phenomenon of resilience as described by adults who have experienced mental illn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3), 587-595.
- Frese, F. J., Knight, E. L. & Sake, E. (2009). Recovery from schizophrenia: with views of psychiatrists, psychologists, and others diagnosed with this disorder. *Schizophrenia Bulletin*, 35(2), 370-380.
- Higgins, A. & Mcbennett, P. (2007) The petals of recovery in a mental health context. *British Journal of Nursing*, 16(14), 852-6.
- Miller, J. F. & Powers, M. J. (1998).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hope. *Nursing Research*, 37(1), 6-10.
- Paul, H. L., Philip, T. Y., Jared, O. & David, R. (2010). Association of stigma, self-esteem, and symptoms with concurrent and prospective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in schizophrenia. *Clinical Schizophrenia & Related Psychoses*, 4(1), 41-49.
- Resnick, S. G., Rosenheck, R. A. & Lehman, A. F. (2004). An exploratory analysis of correlates of recovery. *Psychiatric Services*, 55(5), 540-547.
- Snyder, C. R. (Ed.). (2000). *Handbook of hope: Theory, measures, and applications*. Academic Press.
- Walker, L. O. & Avant, K. C. (2011)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Trans. Oh, K., Lee, I. S. & Joe, S. Y. Boston: Prentice Hall.
- Watkins, A. P. (2009). Religious perspectives: A quest for meaning, a search for hope. *Counterpoints*, Vol. 342, 149-161.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Mental disorders <https://www.who.int/en/news-room/fact->

sheets/detail/mental-disorders(검색일 2022. 10. 13)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장애 정도 판정 기준.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E%A5%EC%95%A0%EC%A0%95%EB%8F%84%ED%8C%90%EC%A0%95%EA%B8%B0%EC%A4%80#liBgcolor0> (검색일 2024. 8.20)

국립국어원 (2024). 정신장애인, 희망,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검색일 2024.9.15.)

위키백과 (2024). 희망. <https://ko.wikipedia.org/wiki/%ED%9D%AC%EB%A7%9D> (검색일 2024.9.15.)

통계청 (2024). 전국 장애유형별, 성별 등록 장애인 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5&vw\\_cd=MT\\_ZTITLE&list\\_id=G\\_2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5&vw_cd=MT_ZTITLE&list_id=G_2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024.8.4.)

Merriam-Webster 사전 (2024). Hope.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hope>(검색일 2024.9.15.)

#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 개념분석

## Concept Analysis of Hope of Community Dwelling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최은정 (고신대학교)

정유진 (경남정보대학교)

조현미 (가야대학교/교신저자)

### 논문초록

본 연구는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 개념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도 되었으며 Walker와 Avant의 연구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봄’, ‘정신장애로부터 자유로움’, ‘평범한 일상을 누림’, ‘질병의 의미를 발견’을 결정적 속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을 ‘미래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정신장애에 얽매이지 않고 일반인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의미를 찾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 가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의 속성을 통해 재가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적극적 회복인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정신건강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가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희망의 속성에 대한 명료화가 그리스도인들이 재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인식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재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을 고취시켜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도모할 중재개발과 연구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정신장애, 지역사회, 희망, 개념분석